"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세계청년대회(WYD)란 무엇인가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1985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대축제입니다.

WYD는 3~4년마다 교황이 선정한 도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초청하여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대회에는 교황과 전 세계 주교, 사제, 수도자,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가톨릭 단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를 엽니다. WYD를 통해 전 세계의 청년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나 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국적과 인종을 넘어 친교를 나누며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모이는가? (WYD의 4가지 핵심 목적)

WYD는 단순한 행사나 관광이 아닌, 다음과 같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Festival of Encounter)
WYD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만남의 축제입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고, 교회와 교황을 만나며 무엇보다 기쁨 안에서 하느님과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가톨릭의 보편성과 시노드 정신을 드러내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친교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목 (Pastoral Journey)
사목의 차원에서 WYD는 개별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의 청년사목 전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교회의 관심과 동행을 체험하고 교회는 그들의 기쁨과 희망,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순례 (Pilgrimage)
단순한 관광이나 모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내적 회심과 신앙의 새로움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걷는 여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됩니다.

선교 (Mission)
WYD는 가톨릭만의 행사가 아니라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든 이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현장에서 참여한 이들뿐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까지 젊은이들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그들의 열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WYD는 온 교회를 위한 강력한 선교의 원동력이 되며, 젊은 세대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초대하는 특별한 계기가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춘천교구를 찾아올
청년 순례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춘천교구(교구대회, DID)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나요?

서울 본대회에 앞서 2027.7.29 - 8.2 (4박 5일) 춘천교구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춘천교구의 WYD 교구대회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진 교구로서 평화와 화해를 희망하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하느님과 깊은 연결을 체험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또한 지역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나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환영과 경청, 친교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하느님 백성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춘천교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찬미하며,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생태적 회심을 살아갑니다.

평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춘천교구에서 우리는 남북의 평화와 세상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묵상합니다.

신앙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과 성사,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은 하느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춘천교구의 WYD 여정은 “말씀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피조물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며, 평화의 일꾼으로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순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청년들은 희망의 증인으로 성장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
첫째 날(7/29) ‘일치의 날‘ : 환영과 만남
둘째 날(7/30) ‘평화와 찬미의 날’ : 지구 단위 행사
셋째 날(7/31) ‘신앙의 날’ : 교구 단위 행사
넷째 날(8/1) ‘공동체의 날’ : 본당 단위 행사
다섯째 날(8/2) ‘파견의 날’ : 환송

홈스테이의 의미

홈스테이는 본당 공동체가 함께 해외 순례자를 맞이하며 가정교회와 보편교회를 체험하는 사목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본당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루카 10,38)

예수님 초대하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라는 말씀처럼, 순례자를 맞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신청 링크 (신청비 $100)

https://tinyurl.com/TVKCCDID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구대회 프로그램, 이동방법, 집결본당, 홈스테이 안내 등 참가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정 안에서 해외 공동체 여러분을 춘천교구에서 만나 함께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WYD 후원관련 안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하는 축복의 자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후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계좌 안내: 신협) 135-000-202979 재단법인춘천교구천주교회
후원 신청 관련 문의: 033-240-6023 (춘천교구 관리국 회계팀)
팩스: 033-240-6024 / 이메일: ccgwanli@catholic.or.kr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후원 신청서 작성 필수
https://www.cccatholic.or.kr/news/WYD/support